

미국, 국가도로안전전략 개편으로 사람·도로·차량 통합 안전관리 강화

해당국가	미국	기관(기업)	미국 교통부(USDOT)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도로교통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

□ 미국 교통부는 교통사고 사망·부상 감소를 위한 새로운 「국가도로안전전략(NRSS)」*을 발표하고, 사람·도로·차량을 연계한 범부처 도로안전 관리체계를 강화

* National Roadway Safety Strategy, 교통부와 산하기관이 함께 이행하는 도로안전 종합계획

-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세를 지속하기 위해 단속·교육·도로환경 개선과 차량기술 혁신을 연계한 종합적인 도로안전 정책을 추진
 - 2025년 도로교통 사망률이 기록상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감소한 가운데, 경찰과의 협력, 위험운전 단속, 음주·주의 분산 운전 예방교육 등을 지속 강화
 - 도로환경 개선과 자동차 안전기술 혁신을 연계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를 함께 줄이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
- ‘안전한 사람·안전한 도로·안전한 차량’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교통부 산하기관의 기능을 연계한 통합적인 실행체계를 구축
 - 가족·통근자·화물차 운전자·건설근로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와 교통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도로 설계·운영·단속을 연계한 사고예방체계를 확대
 - 도로·차량·화물·철도·위험물·대중교통 등을 담당하는 산하기관별 정책수단과 안전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국가 도로안전전략의 실행력을 강화

□ 도로 설계·운영 개선과 차량 안전기술 고도화를 병행하고, 교통단속부터 철도건널목·위험물 운송까지 교통체계 전반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

- 도로 설계 개선과 교통혼잡 완화, 위험운전자 관리 등을 통해 사고 발생과 2차 사고 위험을 줄이는 도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
 - 혁신적인 도로 설계와 정체구간 개선을 통해 위험요인을 줄이고 사고 발생 이후 교통혼잡에 따른 2차 사고와 추가 피해를 최소화
 - 경찰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위험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관리·단속을 강화하여 도로 이용자와 교통 종사자의 안전성을 제고
- 차량 안전기준 현대화와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산하기관별 안전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기술 기반 사고예방체계를 강화
 - 차량 안전기준을 현대화하고 국가 차원의 자율주행차 전략과 사고예방 기술 투자를 확대하여 첨단 차량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향상을 추진
 - 도로교통안전국(NHTSA)의 사고예방, 연방철도청(FRA)의 철도건널목 개선, 위험물안전청(PHMSA)의 위험물 운송관리를 연계해 교통체계 전반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

※ 출처 : USDOT(2026.08.05), Trump's Transportation Department Releases New Strategy to Deliver Safer Roads for American Families